“공정한 선거관리 집중”

전북자치도선관위, 2025년 주요업무계획 회의 열고 주요업무 추진방향 · 금고이사장선거 관리대책 논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22일 15개 구·시·군위원회 사무국·과장 및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주요업무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주요업무 추진방향과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이하 금고이사장선거)의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2021년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자체적으로 선출하던 금고이사장선거를 선관위에 의무위탁하도록 했고, 그동안 대부분 간선제(총회, 대의원회) 방식으로 선출하던 이사장선거 선출방식을 일부 소규모 금고를 제외하고는 회원 투표로 직접 선출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전북선관위는 회원 직선, 대의원 간선 등 이사장선출 방식에 대응하는 최적의 관리방안을 마련해, 위탁선거 법규·편람·지침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절차사무를 관리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금고이사장선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해 선거결과에 대한 분쟁·갈등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제고하는 한편, 생활 주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통해 일각에서 제기하는 선관위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선거환경 변화 및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도록 정치관계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으로 선거여론조사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여 우리 사회 여론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선거여론조사 조작·왜곡 등 중대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임병철 사무처장은 선거관리과정에서 나온 작은 실수가 부정선거 의혹과 가짜뉴스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부정선거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마음가짐으로 금고이사장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내년에 실시하는 제9회 지방선거를 철저히 준비하여 선거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또한,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고 투명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현재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헌법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 각자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정읍 샘고을 시장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설 명절을 앞둔 22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정읍 샘고을 시장을 찾아 이학수 정읍시장과 함께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 조류충돌 위험도 3번째로 낮아”

전북자치도, 새만금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주장에 “사실무근”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10여 명이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공항 설치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회원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국의 모든 공항과 신규 추진 공항을 통틀어 조류 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고, 조류 충돌 총 위험도는 계획지구 5km를 기준으로 무안공항보다 최대 610배 높다고 밝혔으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반론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다.

전북자치도 도로공항철도과에서 밝힌 자료에 의하면 “국토부의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21년 9월)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조류의 비행을 방해할 만한 건축물 없이 장기간 관리되지 않은 초지이고, 조류 및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서식·활동하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류충돌 위험도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평가결과를 절대적인 수치로 보기 어려우므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는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접해서(1.35km 이격) 기 운영중인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비교·분석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군산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3번째로 낮게 평가되어 조류충돌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공동행동 회원 10여명은 21일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공항이 국내 전체 공항 통틀어 항공기-조류충돌 위험도가 가장 높고, 무안공항보다 무려 610배나 높게 나타난 바 있으므로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설 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22일 고창전통시장에서 장보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설맞이 장보기 행사는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물가 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에 활력을 불어넣어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조민규 의장을 비롯한 고창군의회 의원들은 고창전통시장을 방문해 각자 준비한 고창사랑상품권을 이용해 농축산물, 제수용품 등을 구입했으며,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고창=김영식 기자

민주 전북도당, 격포 수산시장 화재 피해 위로 전해

“지자체와 협력해 피해 복구 · 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난 21이 격포 수산시장 화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화재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이원택 위원장은 “지난 21일 밤 11시경, 격포 수산시장에서 전기적 결함으로 발생한 화재가 강풍과 겹치며 큰 피해를 초래했다. 이번 사고로 상가 1층의 11개 점포가 전소되고, 2층 점포도 그을음 피해를 입어 상인 여러분께서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깊은 안타까움을 전한다.”고 말하며, “특히 명절 대목을 앞둔 시점에서 이런 사고를 겪으신 상인 여러분의 고통과 어려움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부안군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화재 현장을 신속히 파악하고, 피해 복구와 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인 여러분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영업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도민 여러분의 민생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항상 도민 여러분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상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복구와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2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KG 모빌리티 커머셜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전기버스 생산 및 판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군산·전북 경제 활기 기대”

문승우 도의회 의장, KGM 커머셜 현장 방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22일 군산형 일자리 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KG 모빌리티 커머셜 군산 공장을 방문해 현장을 시찰하고 전기버스 생산 및 판로 애로 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올해 본격적인 신차종 소형버스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신호탄을 알리는 KGM 커머셜의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수출용 제품을 볼 수 있는 제1공장 생산라인과 자체 생산 차량의 품질을 점검하는 품질관리동을 각각 둘러보며 KGM 커머셜에서 생산되는 차량 제작 과정을 살펴봤다.

이어 문 의장은 업체 완성 차량인 9M급 중형 전기버스를 직접 시승 운전하며 주행 성능을 비롯한 전반적인 상품성을 체험했다.

문 의장은 “직접 현장을 와보니 우리 지역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겠다는 희망이 보인다”며, “자체 기술로 개발을 완료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양산을 시작한 9M급 전기버스의 계약 물량 증대로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 미래 모빌리티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전기차 생산에도 희망이 보이는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도 이들 기업들이 비상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KGM 커머셜은 2023년 11월 에디슨모터스 인수 후 지난해 1월 전기차 협업기반을 구축한 뒤 9M 중형버스 생산 및 판매(2024년 10월) 및 신차종 7M 소형버스 개발을 진행(~2025년 6월) 중에 있다. /이만호 기자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박정규 도의회 문안위원장, GBCH 응원 릴레이 동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임실) 위원장이 22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약자로, 이명연 전북도의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전북도민의 결집을 촉구하며, 도민들의 한마음 한뜻으로 2036 하계올림픽 유치의 염원을 함께 전했다.

박 위원장은 누리 소통망(SNS)에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올리며, 도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또한, 다음 응원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형열 위원장과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연국 의원을 각각 지목했다. /이만호 기자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 3.0%로 상향

민주 이원택 의원,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2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비(이하, 농지비)의 부과율 상한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해, 농지비 부과의 본래 취지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 수행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하여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지비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지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또한, 2024년 9월 말 기준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 3,151억 원으로 이미 2023년 당기순이익인 2조 2,343억 원보다 높았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된 상태이며, 많은 회원조합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지비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여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역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만호 기자

민주 이원택 의원 “지역구 배수개선 사업비 400억 확정”

올해 김제시·부안군·군산시(대야면·회현면) 내 31개 지구에 배수개선사업비로 400억원이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22일, 김제시·부안군·군산시(대야면·회현면) 지역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로 31개 지구가 확정돼, 이들 지역에 올해 4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제 홍산지구, 내촌지구, 서포2지구, 현호지구, 신기지구, 주산1지구, 군산 광교지구 등 947ha의 7개 지구는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구로 신규 선정돼 이들 지역에 향후 635억원의 예산(2025년 예산 13억원)이 투입돼 배수장 및 배수문, 배수로 정비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배수개선사업이 신규로 착수에 들어가는 지구는 김제 월봉지구, 김제 연포지구, 김제 신흥지구, 김제 용마지구, 부안 백석지구, 부안 계화지구 등 6개(총사업비 615억 원, 25년 예산 6억 원, 수혜면적 951ha)이며, 계속사업지구는 김제 광활3지구, 김제 난봉지구, 부안 동진2지구, 군산 월연지구, 군산 접산지구, 군산 하리지구 등 18개(총사업비 2,371억원, 25년 예산 382억원, 수혜면적 2,887ha) 지구로 이 가운데 부안 동진1지구, 김제 대창지구, 부안 대초지구 등 3개 지구는 올해로 사업이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원택 의원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증가로 농가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기후재난시대에 맞는 영농활동 기반 정비 사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김제·부안·군산을 비롯해 전북 도내 농민들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윤준병 의원, “지역구 배수개선 159억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2일 2025년도 배수개선사업 예산 총 159억3,6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배수개선사업 신규착수·계속 사업비로는 정읍·고창 지역 11지구(△정읍(5지구) : 평령·석우·용흥·백운3·평령2지구, △고창(6지구) : 고창·강남·신림·신평(신규착수)·송산(신규착수)·해룡(신규착수)지구)에 2025년 국가예산 155억원(총사업비 1,103억원)을 확보했다.

배수개선사업 신규 기본조사지구로는 정읍 오금지구(추정사업비 120억원), 고창 성내지구(추정사업비 90억원), 고창 우평지구(추정사업비 64억원), 고창 무장지구(추정사업비 56억원) 등 4곳이 지정됐고, 2025년 국가예산 4억3,600만원이 투입돼 기본조사 및 시행계획 수립 후 최종 사업비가 확정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약 1,448.1ha의 정읍·고창 농경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집중 호우시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겪었던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농사에 전념할 것으로 기대된다.

배수개선 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가 발생하는 농경지에 배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장 등 배수와 관계되는 방재시설을 구축하거나 재정비하여 농경지의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윤준병 의원은 “배수개선 사업들이 문제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으며, 영농활동의 여건 개선과 더 살기 좋은 정읍·고창을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자체 및 관계 부처 등과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